

선악과를 먹은 아담, 스스로 신이 되려는 사피엔스

김승욱 (발행인)

무신론자인 이스라엘 히브리대의 역사학과 교수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인류의 역사는 인류가 신을 창조하면서 시작됐고, 인류가 신이 되면 역사는 끝날 것이라고 했다. 호모 사피엔스가 육체적으로 크고 훨씬 힘이 센 네안데르탈인을 지구상에서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은 사피엔스의 인지능력 혁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침팬지 무리의 개체수는 20-50마리 정도로 한계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리가 더 커지면 질서가 불안정해지고 불화가 생겨 결국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적 규모는 150명이라고 한다. 호모 사피엔스가 이 결정적 임계치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허구의 등장 때문일 것이라고 유발 하라리는 추측한다.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공통의 신화를 믿으면 성공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 신화를 만들어서 많은 무리가 결속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네안데르탈인을 지구에서 몰아냈다는 것이다. 결국 신은 인간의 창조물이라는 것인데,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유발 하라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생명공학, 사이버공학, 비유기물공학 등으로 인해서 인류가 이제 더 이상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신이 된다는 것이다. 후속작인 <호모데우스Homo Deus - 신이 된 인간>에서 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예측하게 된다면 인간은 빅데이터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 데이터가 인간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미래는 구글이 신이 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했다. 멜더스 목사가 말한 바와 같이 인류의 성장을 저해하던 '기아, 역병, 전쟁'을 극복한 인류는 이제 신의 영역이라 여겨지던 '불멸과 행복'의 영역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류의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는 특성상 성장을 멈추면 추락해서 산산조각 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인류가 신의 자리로 올라서야 하며, 이미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참담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책 <사피엔스>가 30개 언어로 번역돼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고, 한국에서도 엄청난 호응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2015년 11월 23일에 초판이 발행되었는데, 세 달 후에 29쇄를 인쇄할 정도였다. 이런 무신론자들의 도전 앞에 기독교계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사실 이와 유사한 주장은 이미 오래전에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에 의해서 제기 되었다. 그는 <특이점이 온다(The Singularity is Near)>에서 2045년이 되면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사라지고, 인류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2011년 2월 21일자 <타임>지의 커버스토리로 다루어졌다. '특이점'이라고 번역이 된 'singularity'란 기술변화가 너무 급작스럽고 심대해서 인류역사의 엄청난 분기점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레이 커즈와일은 커즈와일 키보드로 유명한데, 그는 미국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어 있으며, 명예 박사학위를 15개나 갖고 있다. 미항공우주국(NASA)과 구글이 함께 투자해서 세운 대학은 그를 초대 총장으로 영입했으며, 그 대학의 이름을 Singularity University로 정할 정도로 인정받았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대에 깨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냉동 인간이 되는 사람들도 많다. 미국 과학자 로버트 에팅거(Robert Ettinger)는 인체냉동보존술의 개념을 주창했는데, 그는 자신의 두 부인과 함께 106번째로 냉동보관되어 있다. 냉동보존연구소(Cryonics Institute)에는 2011년에 이미 900명이 가입을 했으며, 그 중에 400여명은 2,900만원의 계약금을 내고 사후 냉동보관을 계약했다. 케임브리지대학교 노화이론가 오브리 데이비드 니콜라스 드 그레이(Aubrey David Nicholas Jasper de Grey)도 인간의 수명이 앞으로 500년 그리고 이어서 1,000년으로 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너던 와이너(Jonathan

Weiner)는 <과학, 죽음을 죽이다 - 생명 연장의 비밀을 찾아서(Long for This World)>에서 그런 세상이 불과 40년 뒤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미 두 마리 원숭이의 머리 교환 수술이 성공했는데, 이는 원하기만 하면 인간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런 시대가 오면 빈부격차 문제가 어떻게 될까? 지금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점에서 볼 때 그래도 공평하다. 그러나 이제 원하는 만큼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면 누구에게나 그런 선택의 자유가 주어질까? 부자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림의 떡이라고 한다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은 일부 계층에게만 가능할 텐데, 그때 발생하게 될 사회적 갈등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레이 커즈와일은 이러한 기술변화가 급속하게 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도 머지않아 큰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예측을 하지만, 과연 그럴까?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각종 윤리적인 문제 이외에도 이러한 사회적 통합과 관련된 문제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 지성인들의 성찰과 대안제시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대이다.



글 | 김승욱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받고,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사학회 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등을 하고 있다.